

2024년 0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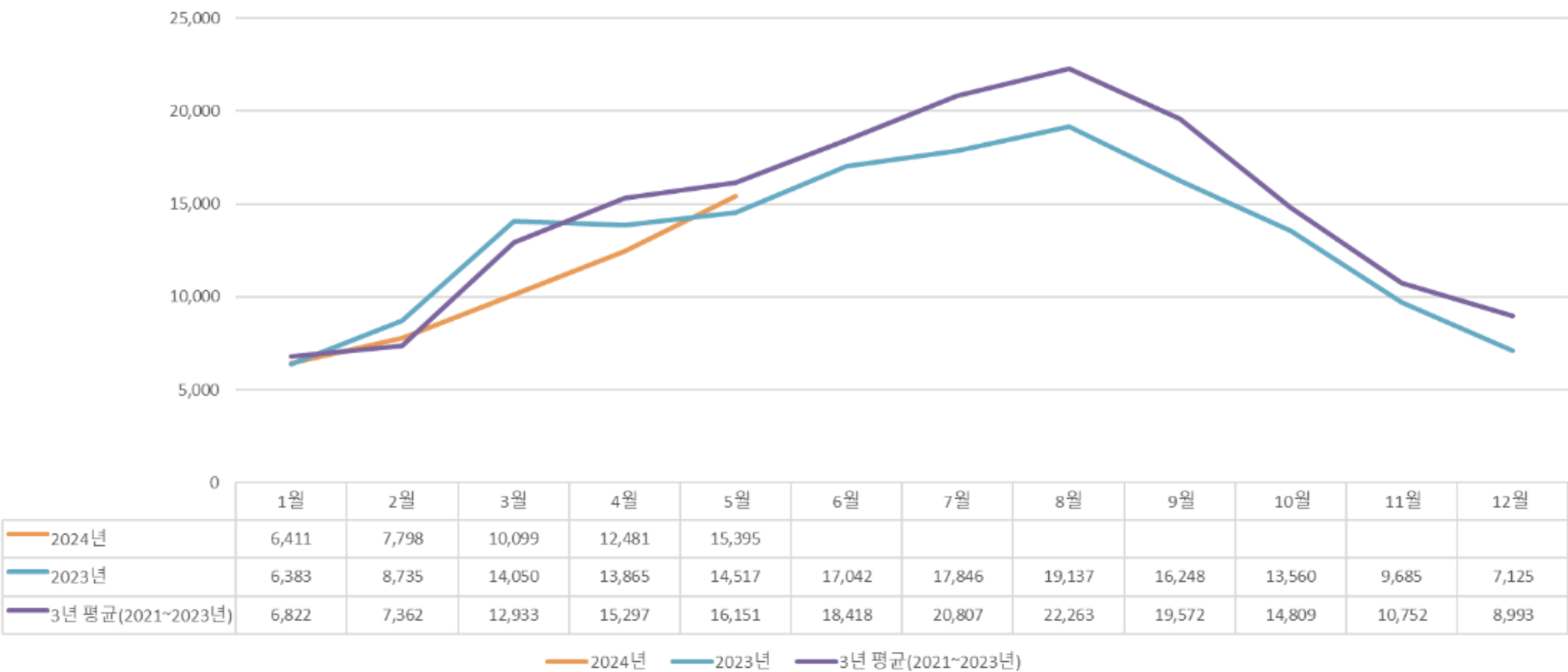
월간 수산 이슈

# 뉴스클리핑

## HOT ISSUE

- 배합사료생산동향 - 고수온·질병 발생 우려 속 생산량 감소 예상
- 전남 해역 올여름 수온 평년보다 2℃ 상승 전망 -수과원
- 전기요금 2년간 52.7% 인상, 양식업체 줄도산 위기

# 배합사료생산동향 - 고수온·질병 발생 우려 속 생산량 감소 예상



지난 5월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량이 4개월 만에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양식업체 상당수가 사료비, 인건비, 전기요금 등 각종 양식경영비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이 올 여름 우리 바다 수온이 평년 대비 1℃ 내외 높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데다, 지난 5월 27일과 6월 10일 전남 무안과 충남 태안 지역에서 차례로 새우 급성간 췌장괴사병이 발생함에 따라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량 증가세는 일시적 현상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지난 5월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1만 5,395톤으로 전년 동월(1만 4,517톤) 대비 6.0% 증가했다. 반면, 3년 평균(1만 6,151톤, 2021~2023년 평균) 동월 생산량에 비해서는 4.7% 줄어들었다. 2024년 1~5월 누적 생산량도 5만 2,185톤으로 전년 동기(5만 7,550톤) 대비 9.3% 감소했다.

## ▶ 넙치용: 사료 생산량 6개월 연속 감소

넙치용 배합사료 생산량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넙치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1,279톤으로 전년 동월(1,863톤) 대비 31.3% 감소했다. 3년 평균(2,055톤, 2021~2023년 평균) 동월 생산량에 비해서도 44.4% 급감했다. 2024년 1~5월 누적 생산량도 6,985톤으로 전년 동기(1만 200톤) 대비 31.5% 감소했다.

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넙치 육성물량은 1억 901만 마리로 전년 동월(1억 356만 마리) 대비 5.3% 증가했다. 지난 5월 넙치 종자 입식량은 950만 마리로 전년 동월(972만 마리)에 비해 2.3% 감소했다. 2024년 1~5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2,979만 마리로 전년 동기(3,413만 마리) 대비 12.7% 줄어들었다. 이는 넙치보다 강도다리를 입식하는 양식업체들이 증가했고, 중간종자를 입식하는 경향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넙치 양식업계는 제주도 관내 양식장 10여 개소가 매물로 나올 만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넙치 양식생산성 하락의 주요인인 폐사 원인규명과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양식업계 스스로 생산경쟁력을 갖추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예년과 같은 사료 생산량을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

▶ 조피볼락용: 조피볼락 종자 입식 기피, 사료 생산량 증가세 지속 힘들 듯

지난 5월 조피볼락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1,044톤으로 전년 동월(849톤) 대비 23.0% 증가했다. 3년 평균(776톤, 2021~2023년 평균) 동월 생산량에 비해서도 34.5% 증가했다. 2024년 1~5월 누적 생산량 또한 3,120톤으로 전년 동기(2,987톤) 대비 4.5% 늘었다.

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조피볼락 육성물량은 1억 5,661만 마리로, 전년 동월(1억 5,637만 마리)과 비슷했다. 크기별 육성물량을 살펴보면 ▶마리당 300 g 미만 크기는 종자 입식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한 반면, ▶출하가능한 300 g 이상 크기의 경우 전년 동월에 비해 4.8% 감소했다.

올 1~5월까지 종자 누적 입식량은 3,894만 마리로 전년 동기(4,322만 마리) 대비 9.9% 감소했다. 최근 성어 산지가격이 낮게 형성되는데다 전년과 같은 고수온·저수온 기 대량 폐사를 우려한 양식업체들의 입식의향이 낮았기 때문이다.

5월의 경우 수온이 조피볼락 성장에 적합한 수준으로 형성되면서 배합사료 사용량이 증가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조피볼락은 다른 양식어종에 비해 육성기간이 길어 폐사율이 높은 만큼, 고수온에 강하거나 육성기간이 짧은 양식종으로 대체되면서 배합사료 생산량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 새우용: 새우 급성간체장괴사병 발병, 사료 생산량 감소세 여전

2022~2023년 2년 연속 각종 질병 발생 여파로 올해 새우용 배합사료 생산량이 전년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지난 5월말 전남 무안과 6월초 충남 태안 소재 새우 양식장에서 새우 급성간체장괴사병이 발병하면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5월 새우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2,503톤으로 전년 동월(2,625톤) 대비 4.6% 감소했다. 3년 평균(2,677톤, 2021~2023년 평균) 동월 생산량에 비해서도 6.5% 감소했다. 2024년 1~5월 누적 생산량도 4,919톤으로 전년 동기(7,905톤) 대비 37.8% 줄어 들었다.

이에 올해도 새우 급성간체장괴사병 등 질병 확산 여부가 새우 양식생산량 및 배합사료 생산량 증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전남 해역 올여름 수온 평년보다 2℃ 상승 전망 - 수과원

올여름 전남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2℃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양식생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북 양식 주산지인 남해 서부 해역의 냉수대 세력 약화로, 올여름 고수온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했다.

수과원 남해수산연구소는 지난 5월 남해 서부 해역(흑산도-진도-완도)의 냉수대 조사 결과, 수온이 평년(2013~2023년)보다 1.5~2.5℃ 높은 것으로 관측했다. 또한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올여름 수온을 예측한 결과, 냉수대 세력이 예년보다 약하게 형성되어 평년보다는 2℃ 정도 높고 전년과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과 2021년 남해 서부 해역의 냉수대 약화로 흑산도를 비롯한 전남 해역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의 대량 폐사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수과원 남해수산연구소는 전남 해역의 주요 어패류양식장 수온 정보를 SNS(네이버 밴드)를 통해 매주 양식업체들과 공유하고 있다. 7월부터는 고수온 피해 우려 해역인 전남 진도, 완도, 고흥을 중심으로 주간 단위의 수온 예측 정보도 지자체 및 양식업체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는 '전북-수산업관측(2024년 6월호)' 자료를 통해 여름철 고수온기 폐사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전북 양식업체들의 출하의향이 높아 산지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보양식 수요가 증가하는 7월에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 NOAA와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양식 기술개발 협력 키로- 수과원



국립수산과학원은 6월 25~27일 미국 해양대기청(NOAA) 본부(실버 스프링 소재)에서 개최된 '제 17차 한·미 해양과학기술협력 양식패널 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양식 기술개발과 냉수성어류 맞춤형 질병 치료제 개발 연구를 2025년 신규과제로 제안했다.

###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양식 연구 협력

최근 전기료 상승, 지구 온난화 등으로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높아져 이를 절감시키기 위해 추진될 예정이다. 추진 방안으로 스마트양식 운영·설계를 통해 최적화된 양식장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냉수성어류 맞춤형 질병치료제 개발 연구 협력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연어의 국내산 대체를 위해 양식기술 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 냉수성어류의 세균성 치료제 개발과 질병 관리 등 미국측 전문가와 협력하여 기술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식연구 현황과 추진 전략도 공유했다. 특히 양국 연구자들은 해조류를 이용한 양어사료 개발에 많은 진척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한편, 한·미 해양과학기술협력 양식패널 회의는 2002년부터 22년간 양국 공동 관심분야의 연구자간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왔다. 이를 통해 양어사료의 품질을 개선하고, 패류 종자의 중간양성을 위한 상향수류식 시설 개발 등 양식기술 발전에 기여해왔다.

## [NL586] 전기요금 2년간 52.7% 인상, 양식업체 줄도산 위기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5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으로 양식업체가 줄줄이 문을 닫는 등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52.7% 인상됐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50개소의 육상 양식장이 문을 닫았으며, 전기요금이 오른 2022년과 2023년에 37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4월과 10월, 2023년 1월, 5월, 11월 등 총 5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이 기간에 농사용(을) 전기요금은 18.8원/kwh 인상돼 산업용 등 다른 계약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을 대비 10%p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2021년 7,809만 원의 흑자를 기록하던 양식업체는 2022년 325만 원 적자로 돌아선 다음 지난해에는 8,546만 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임미애 의원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폐업 사례를 감안하면 양식업 전체가 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도축장, 미곡종합처리장, 천일염 생산시설 등 국가 중요 기간산업에 부여되는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양식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고수온 대응 사전 점검 실시 - 수과원



국립수산과학원은 여름 장마 이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 고수온이 빠르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7월 3일 본원 수산재해종합상황실에서 자체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수과원장 주재로 수과원 수산재해대응팀 및 각 권역별(동해, 서해, 남해, 남동해, 부산·울산, 제주, 내수면) 피해대응반 100여 명이 참여하여 실시간 수온관측, 정밀 해양예측 정보 등 특보 발령에 활용되는 과학적 정보 생산 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점검했다.

또한 최용석 수과원장은 해수부와의 특보 발령 체계, 지자체 및 어업인과의 비상연락체계, 권역별 우심해역 사전대응 및 현장지도 점검 매뉴얼, 피해 발생 시 피해 복구 지원 대책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업무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5월 수과원은 자체 해양 계절예측모델을 통해 올여름 평년 대비 1~1.5℃ 높은 표층 수온을 예측했으며, 수심이 얇은 내만이나 연안에는 이보다 더 높은 수온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7월 중순에서 8월 초순에는 경남 통영·거제, 전남 여수·완도·신안 등 양식시설 밀집해역과 과거 피해가 발생한 해역을 중심으로 고수온 사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고수온 발생 시 양식생물 관리 요령을 전파하며 어업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 유전자진단표준물질 분야, WOAH 협력센터 공동 지정 - 수과원·검역본부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수산물과학원(이하 수과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유전자 진단 표준물질 분야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협력센터로 지정된 것을 축하하는 기념식 겸 국제연찬회를 7월 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정기총회'에서 양 기관은 유전자 진단 표준물질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국제적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개발한 유전자 진단 표준물질을 전 세계 실험실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술이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면 세계의 수산·육상 동물질병 진단 역량도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동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장마철 저염분 대비 양식장 관리 당부 - 수과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본격적인 장마와 양쯔강 범람으로 인한 민물 유입으로 저염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양식장 관리를 당부했다.

### ▶ 강수량 추이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 기간은 평년보다 약간 더 짧지만 강수량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충남, 전북, 경북 등 중부지방은 집중호우로 저염분, 고탁도의 담수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양쯔강 민물 유출량은 지난 6월 중순부터 급격히 증가해 초당 7만 4,000톤에 이르고 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 ▶ 저염분 유입 시 대처요령

양식장내 저염분수가 다량 유입되면 양식생물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저염분에 노출된 어류는 삼투압 조절 기능과 간기능이 저하되어 심할 경우 폐사에 이르기 도 한다. 특히 패류는 염분에 매우 민감하므로 수시로 염분 점검이 필요하다.

### ▶ 저염분수의 다량 유입이 우려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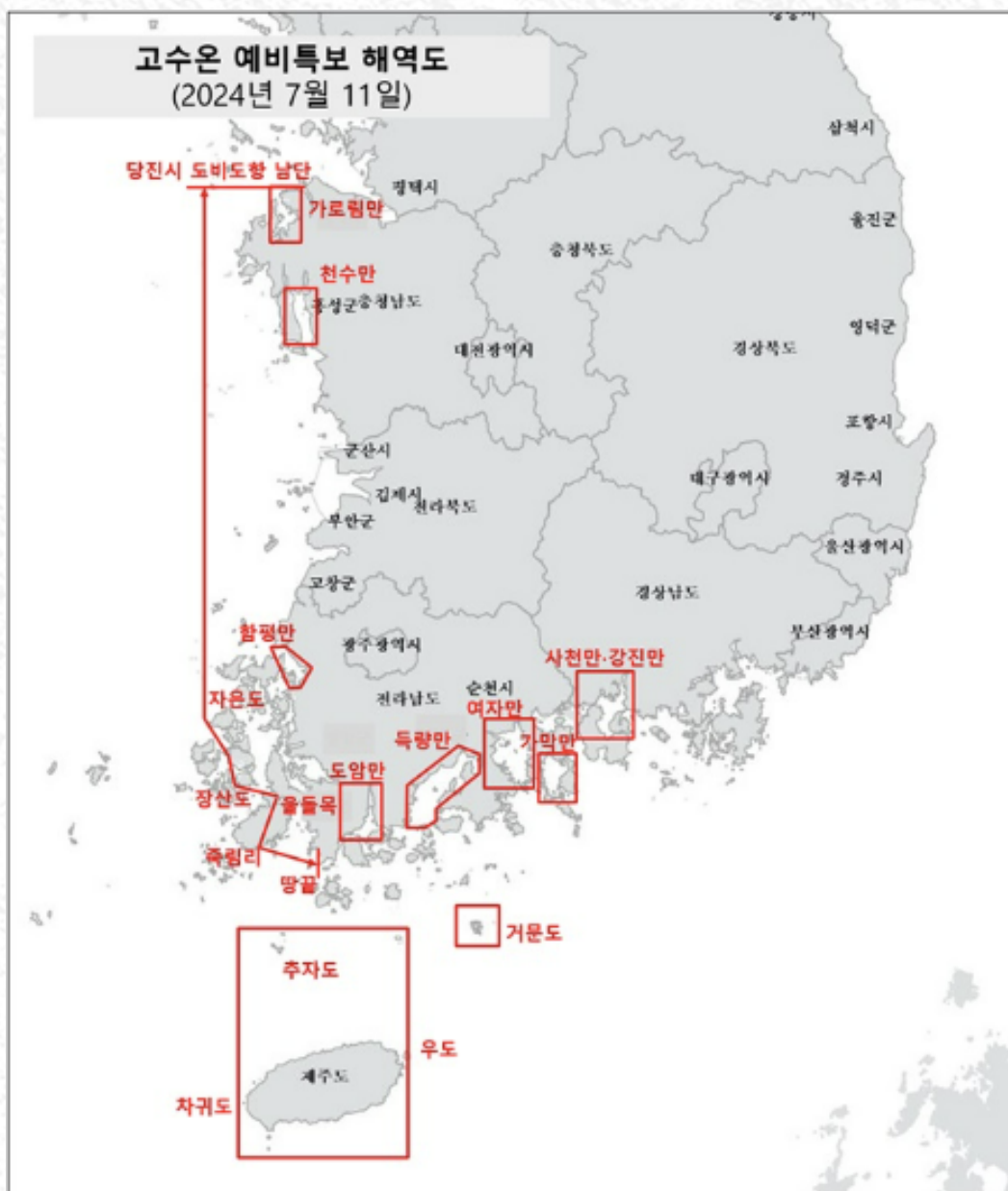
육상 양식장이 많은 제주, 완도 등에서는 양식장에 지하해수를 공급하고, 양식생물의 스트 레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용존산소 공급을 위한 액화산소장치 가동 등 적절한 사육수 관 리를 해야 한다.

### ▶ 저염분수가 유입된 경우

양식장에서는 먹이공급을 감소시키거나 중단하였다가 염분 회복 시 서서히 사료량을 증가 시켜야 한다. 선별, 수송 등 어체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작업은 금지하는 것이 좋다.

전북은 가두리 수심을 5 m 이상의 깊이로 내려 표층에 떠 있는 담수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해상 양식장의 어류와 마을어장의 전복, 소라 등 패류는 조기 출하해 피해를 줄인다.

##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7월 11일 14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서·남해 제주 연안의  
21개 해역에 대해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  
표(2024. 7. 11. 14시부)한 데 따른 조치  
다. 해당 해역은 다음 주 장마전선 북상  
후 수온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주요 연안 수온(2024. 7. 11. 9시 기준): 함평만·득량만·여자만(25.2℃), 천수만(24.8℃), 사천만·강진만(24.4℃), 제주 동부 앞바다(23.9℃)

올해 국립수산물과학원의 고수온 예비특보는 6월 중순부터 지속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다소 늦게 발표됐다. 다만, 올 여름 우리나라 수온은 평년(과거 30년 평균)보다 1℃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 주 장마전선 북상 이후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산단체 대표자 간담회] 수산정책자금 확대 등 건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7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 22대 국회 주요 수산과제 현장에서 듣는다'라는 주제로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산단체	요구사항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 5조 원 이상으로 확대 개편</li><li>• 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 연기 및 유예</li></ul>
한국원양산업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원양어선 외국인 해기사 승선 허용</li><li>• 원양어선 세금 감면 제도 도입</li><li>• 2025년 키리바시 어촌뉴딜 ODA 사업 추진</li></ul>
한국수산물무역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확대</li><li>• 김 수출 수요 증대와 연계한 공급 필요성</li></ul>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협 여성임원 선출 요건 완화</li><li>• 여성어업인의 날 지원</li></ul>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해양수산부 내 내수면산업과 신설</li><li>• 양식장 전용·사용 허가제 규제 완화</li><li>• 내수면 어종 관측</li></ul>
한국김산업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김 자조금 예산 확대</li></ul>
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협회가 자립할 때까지 임의자조금 100% 지원</li><li>• 새우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적용</li></ul>
스마트수산어촌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산업·어촌 중심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li><li>• 육상 양식장 표준설계 개발 시급</li><li>•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 추진</li></ul>

한편, 이원택 농해수위 간사는 “고수온에 따른 수산업계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방문도 추가로 진행하겠다”며, “지역 소멸·어촌 소멸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